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D-7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30일 오후 이탈리아 파빌리온인 광주 동곡미술관에서 참여 작가와 큐레이터들이 작품설치 작업에 한창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본전시 외에도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통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작가들이 광주 미술관들과 협력, 작품을 선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4월호

## 연남



### 미리 둘러 보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자연·예술 어우러진 여수 장도스튜디오

“올봄, 꽃과 초목이 가득한 정원으로 놀러오세요.”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4월호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특집 '정원으로 초대합니다'를 준비했다. 난개발을 막고 깃발을 지키려 만든 순천만정원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수십 년 곁들여 가꾼 개인정원을 개방하는 등 일상 속에 새로운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힐링 명소로 뜨고 있는 전남 민간정원과 신안 '1섬 1테마정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 대장정에 들어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미리 둘러본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미국사 전문가'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미국의 역사·문화에 대해 알리고 있다. 최근 '30개 도시로 읽는 미국사'를 펴낸 김 교수는 미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면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미술계 소식도 준비했다. 첫 번째는 4월 7일 개막하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 '제14회 광주비엔날레'다. 올해 비엔날레는 용봉동 비엔날레전시장을 비롯해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상무지구 무각사 등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고 세계 각국이 예술 역량을 발휘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풍성한 문화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로 문화예술 여행을 떠나보자.

'클러, 문화현장'은 여수 장도장작스튜디오로 향한다. 올봄 여수의 작은 섬인 장도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춘객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GS칼텍스 예술마루가 지난 2019년 조성한 장도 창작스튜디오가 입소문이 나면서 바다와 섬,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려는 이들이 많다. 국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장작스튜디오의 입주 작가전과 예술의 섬으로 떠오른 장도의 수려한 풍광을 둘러본다.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이 향한 곳은 '예술의 섬' 제주도 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본태박물관, 오설록 티뮤지엄, 제주4·3항쟁기념관의 야외 정원에는 예술성 높은 공공조형물이 즐비해 여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남도 오디세이 美遊路'는 함평천지로 떠나는 봄 힐링여행이다. '꽃과 나비의 고장' 함평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4·4·8(술에서 4시간·바다에서 4시간·속소에서 8시간) 함평관광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사계절 머무르고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함평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천지(咸平天地)'로 봄 힐링여행을 떠난다.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음료와 어머니의 손맛 레시피로 맛을 낸 간편조리식품, 아가자기한 힐링카페를 만나는 건 덩이다.

연재물 '세계의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은 의를 지킨 유학자 회재 이언적을 배향한 경주 옥산서원을 둘러보고, 깊고 오묘한 수석의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여석동락(與石同樂) 6인의 수석세계' 전도 함께 소개한다. 4월1일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정교한 재구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KIA타이거즈 '특급 신인' 좌완 투수 윤영철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역동하는 현대미술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미술 축제 광주비엔날레에 초대합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 이후 열리는 대규모 예술행사인 점을 감안, 광주시 전체가 '문화예술관광'에 방점을 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열린다. 비엔날레 역사상 가장 기간이다. 전시공간 역시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세계 각국이 지역 예술기관과 협업해 전시를 꾸리는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프랑스 등 모두 9개국이 참여하면서 광주 전역이 역동하는 현대미술의 장으로 변신한다.

■참여작가들 전시 준비 착각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게'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에는 전 세계에서 모두 79명(팀)이 참여한다. 특히 참여작 중 절반 정도가 이번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이는 신작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3월초 광주에 온 이숙경 예술감독은 비엔날레전시관 등 본전시관에서 작품 설치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해 전시 공간 디자인은 짧은 기간 열리는 비엔날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구조를 만든 것이 특징으로 브뤼셀 출신 건축가 토이 니센과 현지인이 협업을 통해 구성했다.

또 모리 유코, 판 다이징 등 참여작가들도 속속 도착해 '1/O', '스케일 피겨스' 등 자신의 작품 설치에 나서고 있다.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열리는 지역 미술공간들도 각각의 대사관 등과 밀접하게 연결하며 행사를 준비중이다. 이누이트 미술을 소개하는 캐나다의 큐레이터 윌리엄 허프만은 전시 공간인 이강미술관에서 참여작가 32명의 작품을 선별하고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동곡미술관에서는 마르코 바로티 등 5명의 참여작가가 머물며 작품 설치에 한창이다. 재단은 또 전시장에서 작품 해설을 맡을 20여명의 도슨트 교육을 진행중에 있으며 전시 개막에 앞서 열리는 프레스 오픈은 5-6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비엔날레 마케팅 홍보 강화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KTX, SRT와 연계한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광주공항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역 호텔들 등 숙박시설과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재단은 (주)광주신세계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오는 4월6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비엔날레 홍보관을 운영하고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올해 행사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게'를 주제로 만든 토퍼를 활용해 인증샷을 찍고 찍은 사진을 재단 SNS에 올리면홀리데이인 호텔 숙박권 등을 증정한다.

광주관광재단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의 핫 플레이스인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 지하 1층에 '광주 예술여행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내 LCD,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등을 표출하며 리플릿 배포를 통한 홍보와 함께 현장 이벤트 경품으로 광주 비엔날레 티켓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단은 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장소를 경유하는 비엔날레 특별노선을 자유탑 승객 형식으로 1일 9회씩 운행한다. 또 최근 실시한 광주여행 콘텐츠 상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여행사와 함께 비엔날레 연계상품도 4월7일부터 운영한다.

#### ■광주국립합창단 축하 공연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국립합창단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국립합창단(단장 겸 예술감독 윤의중)은 오는 4월 8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에서 창작합창서사시 '훈민정음'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소재로 한글 장제 배경과 과정, 반포 내용을 음악적으로 해석해 보여준다. 국립합창단, 가온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바리톤 이인규, 소리꾼 이봉근 등이 출연해 한국적인 칸타타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료 공연으로 31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및 전화(1899-5566)를 통해 선착순 예매하면 된다.

한편 비엔날레 티켓은 4월 6일까지 예매시 40%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사전 예매시 성인 1만 6000원, 청소년(7000원)과 어린이(5000원)는 각각 5000원,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2일권(2만 4000원)은 개막 후 현장 판매한다.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 네이버 예매 등 예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 참여작가들 작품 설치 한창 KTX 연계 패키지...공항과 협약 광주관광재단, 서울 '더 현대' 홍보 국립합창단, 4월 8일 특별 무대 4월 6일까지 예매시 40% 할인



물처럼 Soft and Weak 부드럽고 like Water 여기게

### 우상임 아코디언 연주로 만나는 제주 4.3

'붉은 풍금소리' 4월 3~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아련한 풍금 소리를 타고 흐르는 4.3 이야기' 제주 4·3 항쟁을 담은 음악극이 광주에서 공연된다. 피아니스트에서 아코디언 연주자로 변신한 우상임이 제주의 4·3을 노래하는 '붉은 풍금소리' 공연이 4월 3-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강릉, 속초를 거쳐 이어지는 투어 콘서트다. '붉은 풍금소리'는 제주 4.3을 경험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1인 음악극 형태로 구성한 작품이다. 아홉 살 때 제주 4.3을 겪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삼촌을 잃은 우씨의 팔손이 넓은 어머니는 4.3의 기억을 담담

히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는 아코디언 연주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음악회를 기획한 우씨는 아코디언 연주자로 변신했다. 공연은 이복에서 제주로 피난 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나의 우산', 아홉 살 때 제주 4.3을 겪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붉은 풍금소리', 제주 해녀의 고된 삶을 노래한 '해녀 도전 폭망기' 등 세가지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작품은 연출가 고능석(극단현장 대표)과 협업했다. 티켓 가격 3만원. '우상임 아코디언리스트' 네이버 블로그



우상임 그에서 예약할 수 있다.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문의 010-5621-261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토요일 무등산 아래서 국악 한마당

전통문화관, 4월1일 박소정·박해라 무대

#### 토요일마다 무등산 아래서 펼쳐지는 전통문화관의 토요일공연이 4월1일(오 후 3시) 서석당에서 첫 개막한다.



박소정



박해라

1일첫공연에는 박소정의 거문고 산조와 박해라의 판소리 무대가 펼쳐진다. 박소정의 산조 무대는 한강특류 거문고 산조로 백낙준에서 박석기로 이어지는 악곡이다. 박소정은 거문고 앙상블 g. street 일원으로 활동 중이며 섬세한 기라 연주가 특징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박해라의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소리꾼 박해라는 심청가 중 방아타령 대목부터 맹인잔치에서 심봉사가 눈뜨고 봉사들이 춤추는 대목까지를 선사한다. 올해 토요일공연은 4월부터 11월 까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 공연예정이다. 지난 3월 전문예술가(단체) 22명

을 공모로 선정해 판소리·산조무대, 국악창작무대, 연희·무용무대 등 매주 장르를 다르게 구성했다. 또한 한 매월 마지막 주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단체)와 제자들이 꾸미는 무대가 예정돼 있다.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무료. 또한 전통문화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관람 가능하다. 오는 8일은 광주시무형문화재 남도 판소리 예능보유자 김선이가 꾸미는 '보성소리 심청가'가 예정돼 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위해 공연 정보를 담은 웹 포스터를 모니터에 송출하고 관람객들에게는 종이 리플릿 대신 대화용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